

전 세계적 ‘피지컬 AI’에 핵심투자… 국내 주가는 ‘미지근’

젠슨 황, 시장규모 50조 달러 전망
韓 정부, 5년 내 로봇 3대강국 목표
내년 R&D 예산 35.3조 규모 확정
삼성·LG도 국내외 로봇기업 인수

지난 4월 NH아문디자산운용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를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는 전 세계 유수의 피지컬 AI 기업 25곳에 투자한다. 김승철NH아문디운용ETF투자본부장은 "피지컬AI는 기존 AI를 뛰어넘어 센서,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다양한 기기와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라며 "AI 발전의 종착역"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달 서울 대치동 소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공간에 국내 로봇 관련 스타트업 및 상장사 7곳과 한국산업은행·신한은행·삼성·현대차 등 27개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모였다. 2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털(VC)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에서 주요 로봇 기업들과 로봇 산업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LP)들을 연결해주기 위해 개최한 네트워킹 행사였다.



ChatGPT가 생성한 '피지컬 AI' 이미지.

'피지컬 AI(운동 지능)' 기술에 집중하는 로봇 기업들이 미래 핵심 투자처로 떠올랐다. 피지컬 AI는 AI 기술이 고도되자 이를 로봇 같은 물리적 장치와 연동시킨 시스템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 피지컬 AI기업들 주가는 미지근한 흐름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피지컬 AI가 새 테마로 떠올랐지만, 'AI 캐즘(Chasm·일시적 수

요 정체)론'도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피지컬 AI산업 '퀀텀 점프'

피지컬 AI 시장은 전쟁터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올해 초 CES 2025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를 50조 달러(6경9355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전망하며 특히 로봇을 미래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우리 정부도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5년 내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제조역량을 활용한 피지컬 AI 선도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며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6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고 AI 분야에 올해(3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피지컬 AI는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테슬라는 9월 중에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용한 '로보택시'를 정식 서비스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이르면 10월부터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선 최근 로봇 기술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주요 대기업들도 각각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베어로보틱스 같은 국내외 로봇 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상장하는 국내 로봇 기업도 급격히 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국내 증시에 상장한 로봇 기업 수는 1곳 정도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엔젤로보틱스·케이엔알시스템·하이젠알앤엠·씨메스·클로봇·티엑스알로보틱스·피엔에스미캐닉스 등 무려 7개 로봇 기업이 상장했다.

◆정부 10조 투자가 주가 동력 될까

피지컬 AI시장은 뜨겁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차갑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피지컬 AI 대장주인 마음AI는 8월 한 달간 10%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유니켄스트는 5900원~6200원대 박스권에서 등락했다. 유니켄스트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다.

다른 로봇기업들 주가도 마찬가지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8월 한 달간 -1.26%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일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하이젠알앤엠 등 주요 종목들도 미지근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을 주도하는 다른 국가 피지컬 AI와 대비된다.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를 앞세운 일본의 전기·전자 기업 미쓰비시일렉은 8월 들어 12%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물류 자동화 기업 다이후쿠도 최근 3주간 18% 가까이 급등하며 신기록을 새로 썼다. 미국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 기대감으로 8월 한 달간 8.30% 뛰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AI 투자 확대 정책에 기대를 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역대 최대 R&D 예산의 핵심이 AI라는 점은 이번 정부가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AI로 옮겨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연말까지 주식시장을 움직일 동력 중 하나는 AI 밸류체인에서 파생되는 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건우 기자 geon@metroseoul.co.kr

미래에셋증권, 업계최초 연금자산 50조 기록

퇴직연금 34조, 개인연금 16조 돌파
7월 말 납입원금 대비 평가차익 8.4조

미래에셋증권이 업계 최초로 연금자산 50조원을 돌파했다.

1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퇴직연금 34조 원(확정급여형·DC 14조원, 개인형퇴직연금·IRP 14조원, 확정급여형·DB6조원), 개인연금 16조원을 기록하며 총 연금자산 5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7월 말 기준 납입원금 대비 평가차익은 8조4000억원에 달했다.

회사 측은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글로벌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과 꾸준한 고객 유입을 꼽았다. IRP 1년 수익률은 12.48%로 은행·증권·보험 전 업권에

서 1위를 기록했으며, 5년 수익률 역시 5.66%로 증권업계 선두에 올랐다. DC 1년 수익률도 12.17%를 기록하며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고객 증가세도 뚜렷하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DB·DC·IRP) 적립금 증가액에서 업권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DC·IRP 적립금은 3조4206억원 늘어나 전체 사업자 증가액의 16.4%를 차지했다. 적립금이 3조원 넘게 늘어난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은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3년 연속(2022~2024년) 우수사업자로 선정되며 운용 전문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연금 인출기 시장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자산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적립식 매수, 모바일 원스톱 연금개시, 퇴직연금 장래채권 매매 서비스, 세액 공제 현황 조회 등 고객 친화 기능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효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장은 "연금자산 50조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객이 미래에셋증권에 보내신 신뢰의 크기"라며 "앞으로도 평안한 노후를 위한 책임감을 갖고 수익률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공모펀드 판매잔고 사상 첫 300조 돌파

금투협, 올해 67.5조 증가

공모펀드 판매잔고가 큰 폭으로 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공모펀드의 판매잔고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300조 5039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판매잔고는 올 한 해 동안 67조 5000억원 증가해 2024년말 약 233조원 대비 29.0%가량 늘었다. 펀드 유형별로는 단기금융펀드(MMF)가 약 166조 9000억원으로 전체 공모펀드 판매잔고의 55.5%를 차지했으며 채권형펀드(50조 4000억원)와 주식형펀드(28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공모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별로는 증권사가 약 195조 4000억원을 기록해 판매잔고의 65.0%를 차지했다. 은행은 93조 8000억원(31.3%), 보험사는 3조 9000억원(1.3%)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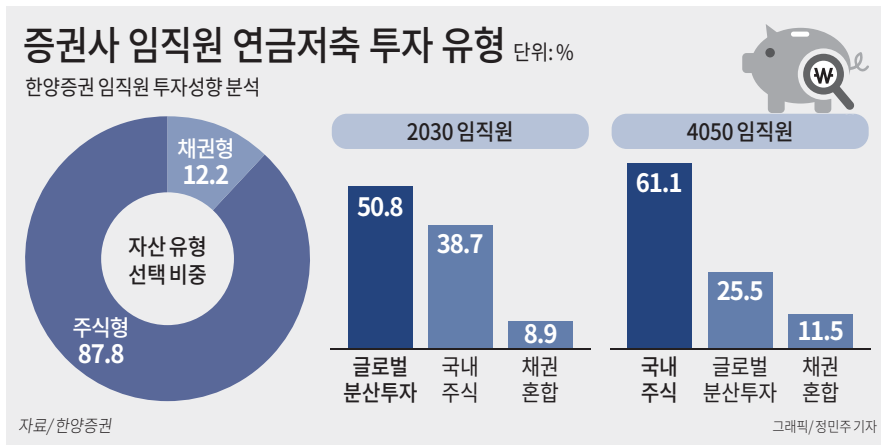
고객유형별로는 금융기관 법인이 퇴직연금, 법인MMF 등의 영향으로 약 166조 6000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55.4%)을 차지했다. 개인 78조 7000억원(26.2%), 일반법인 55조 2000억원(18.4%)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MMF가 약 19조

8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25.1%)을 차지했으나 주식형펀드도 이와 비슷한 규모인 19조 5000억원(24.8%)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판매잔고(692조 7409억원)를 포함한 전체 판매잔고는 993조 2448억원을 기록했다. 공모펀드 계좌수는 약 3571만개로 사모펀드(약 9만개)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그 규모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한편,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펀드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펀드시장 규모는 지난 7월말 순자산총액(NAV) 기준으로 약 1290조원(공모펀드 569조원, 사모펀드 721조원)을 기록했다.

/최건우 기자



증권사 임직원 88%, 연금저축 공격적 투자

한양증권, 투자성향 분석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

전체 투자자의 44% 차지

국내 증권사 임직원 10명 중 9명은 공격적인 연금저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양증권이 지난 8월 도입한 연금저축펀드 매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임직원들의 투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주식 중심 주식형 펀드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어 글로벌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KCGI샐러리맨증권투자신탁’이 37%로 뒤를 이었다. 국채 및 우량 회사채 위주의 채권혼합형 펀드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은 10%, 국내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KCGI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은 7%, 은퇴자에 맞춘 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 ‘KCGI디딤프리덤평생소득TIF증권투자신탁’은 2%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펀드 가입 임직원의 88%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형 자산에 투자한 셈이다.

매칭 프로그램은 한양증권 임직원이 선택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회사가 동일 금액(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KCGI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다섯 개 펀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주식형은 위험 자산에 속하지만, 연금이 장기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택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연금 투자 성향도 극명하게 갈렸다. 2030세대 임직원의 51%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며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과 분산 투자 전략을 선호한 반면, 4050세대는 국내 주식형 펀드를 선택한 비율이 61%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양증권 관계자는 “4050세대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국내 주식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고, 2030세대는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의 구조적 성장성과 리스크 분산 효과를 더 크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남성 임직원은 국내 주식형 펀드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 임직원은 국내와 글로벌에 대한 선택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신하은 기자 godhe@